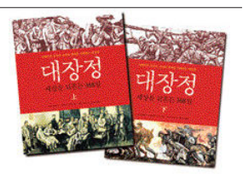
북스

Books

926컷 목판화에 담은 '대장정'

대장정-세상을 뒤흔든 368일

글 왕쑤 그림 선야오이



1934년 10월15일 중국 공산당의 군대 홍군은 장제스(蔣介石·장개석)가 이끄는 국민당 군대의 공격을 피해 그들의 본거지가 있던 중국 남부 장시성(江西省·강서성) 루이진(瑞金·서금)을 떠나야 했다. 이후 이들은 국민당 군대와 전투를 벌이며 368일 동안 9천654㎞를 행군한 끝에 1935년 10월 20일 중국 북부의 산시성(山西城·산서성)에 도착했다.

8만여명의 홍군은 이 기간 동안 산 18개를 넘고 강 24개를 건넜으며, 폭격과 기습 등 국민당 군대와 지방 군벌의 추격은 물론 추위와 배고픔, 질병과도 싸워야 했다. 산시성에 이르렀을 때 이들의 수는 7천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국민당의 명백한 승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중국 공산당은 항일 전쟁과 국공 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점에서 '대장정'은 더 큰 승리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장정-세상을 뒤흔든 368일'(전 2권)은 이처럼 현대 사회주의 중국의 기틀이 마련된 '대장정'을 926컷의 그림과 팩션으로 표현한 '그림이야기책'이다. 원작은 '대장정'을 소재로 웨이웨이(魏巍·위외)가 쓴 장편소설 '지구의 붉은 띠'. 이를 바탕으로 그림이야기 각본으로 바꾼 것은 왕쑤(王素·왕소)이며, 그림은 화가 선야오이(沈堯伊·심요이)가 맡았다.

책은 홍군이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비롯한 여러 지방 군벌들과 벌인 투쟁, 험악한 자연환경과 벌인 투쟁, 홍군 지도층 내부의 잘못된 사상 및 노선과 벌인 투쟁 등 세 가지 투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책 속에는 마오쩌둥(毛澤東·모택동), 저우언라이(周恩來·주은래), 주더(朱德·주덕) 등 지도자들의 강한 정신과 지혜 등이 잘 묘사돼 있다. 그림 속 얼굴 표정이 책의 내용과 겹치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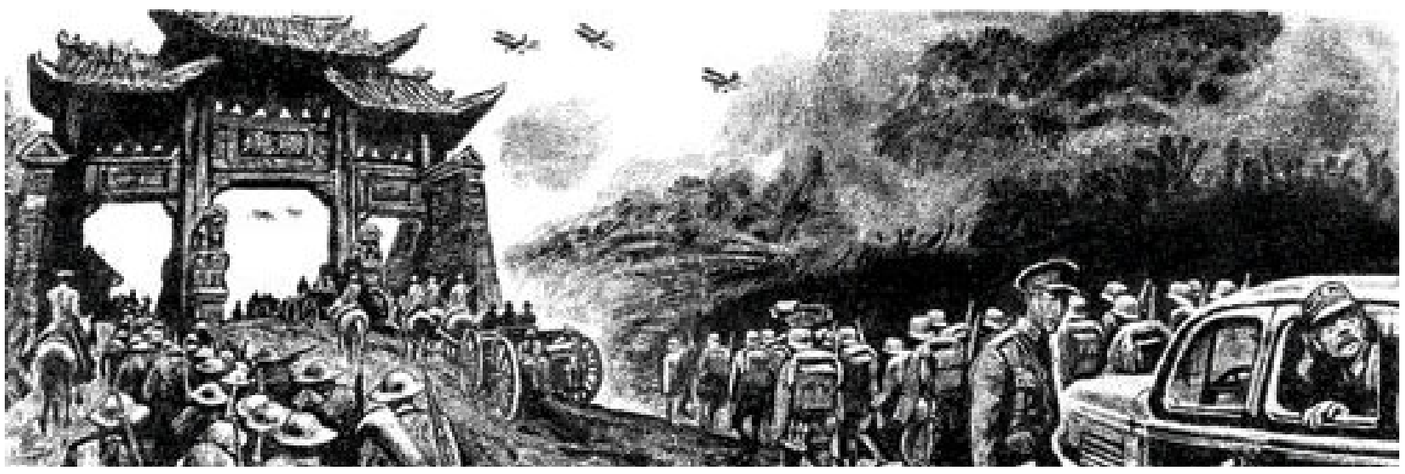
'대장정' 초기 홍군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던 '샹강(湘江·상강) 전투', 마오쩌둥이 극적으로 권력에 복귀하게 되는 '쭌이(遵義·준의)회의', 홍군의 가장 대담한 작전으로 꼽히는 '루딩(瀘定·노정)교 전투', 죽음의 늪 '쑹판(松番·송번) 대초지' 등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다.

'대장정'이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거 스노가 쓴 '중국의 붉은 별' 때문이었다. 당시 스노는 "앞으로 누군가가 이 놀라운 원정을 소재로 완전한 서사시를 쓰길 바란다"고 했다. 이 책이 스노가 말한 '완전한 서사시'로서의 자격을 갖는 것은 중국인들 스스로 썼기 때문이기도 하다.

책은 '그림이야기책'으로도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다. 1989년 출간 이후 책은 중국 내 '제7차 전국 미술작품 전람회'에서 상을 받은가 하면, '중국 공산당 창건 70돌 기념 전국 미술전람회'에서 금상, '제4차 전국 그림이야기책 평의'에서 그림 부문 1등상과 이야기 부문 2등상 등을 수상했다.

김희교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책머리에 "아직도 중국 인민들의 피 속에는 대장정 시기에 품었던 꿈, 즉 모든 사람들이 고루 사람답게 잘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이 꿈틀거린다"며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현재 중국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장정'을 읽는 것이 '삼국지'를 읽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리·각 권 3만5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 소속 정찰기가 '대장정' 중인 홍군의 행렬 위를 날고 있는 장면. 상권 본문 474~475페이지.

인문 교양서 시리즈 '지식인…' 16권 출간

국내 학자들이 국내·외 지식인들을 새롭게 해석한 인문 교양서 시리즈가 출간됐다.

이번에 출간된 것은 '지식인 마을'시리즈 1차분은 15권과 가이드 역할을 하는 '지식인마을에 가다' 등 16권. 출판사 측은 위대한 지식인을 소개한 국내·외 유명 교양 시리즈와 '서울대 권장도서', 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참고로 100인의 지식인을 선정했다.

선정된 100인은 각각 대립하거나 연관이 있는 두 명씩 묶여 한 권에 등장하며, 전체 시리즈는 50권으로 구성된다. '다윈&페일리', '데카르트&버클리', '공자&맹자', '토플러&엘륄', '아인슈타인&보어' 등이 먼저 나왔다. 〈김영사·각 권 9천500원〉

불량의학 크리스토프 완제크 지음

터무니 없는 의학상식 발가벗기기

2006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마 건강과 돈 버는 방법이 아닐까.

특히 건강과 관련해 넘쳐나는 각종 상식과 정보는 어지러울 정도다.

하버드대에서 공중보건학을 공부하고 워싱턴 포스트 등에 건강 관련 글을 기고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완제크가 쓴 '불량의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건강정보'와 '의학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가 밝힌 도전적인 책이다.

저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좋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거나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특히 단순히 원론적인 주장에 멈추지 않고 실존하는 회사와 인물, 책을 거론하며 문제점들을 꼬집는다.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불량의학은 바로 '우유가 몸에 좋다는 것'.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을 배출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지방이 과다하게 함유돼 있어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 저자는 "건강 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탄산음료 등을 선택할 때 '우유를 마셔'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일이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저자는 그밖에 'TV를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나빠진다' '건강보조 식품들은 나쁠 것이 없다' '맹장은 쓸모 없는 기관이다' 등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유기농은 과연 얼마나 안전한가?' '방사선은 정말 위험한가?' '인간은 정말 뇌의 10퍼센트밖에 못쓰고 죽을까' 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이 책 역시 '맹신'은 금물.

저자는 건강비법은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 모든 건강 관련 의학 상식에서가 아니라 '적당한 운동'과 '절제된 식사'에서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열대림·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쟁과 리더십=전쟁에서 지휘관이 갖춰야할 자질과 리더십을 고찰한다. 저자 프라이탁 로링호벤은 클라우제비츠의 저서 '전쟁론'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대한 사상을 정리하고, 7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미 남북전쟁 등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황금알·9천800원〉

▲헬싱키 로카마티오 일가 이면의 사실들=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파이 이야기'의 작가 얀 마텔의 첫 소설집이다. 에이즈로 죽어가는 친구와의 이야기를 다룬 표제작과 사형수의 죽음을 여러 상황으로 조명한 '죽는 방식' 등 4편을 엮었다. 〈작가정신·8천900원〉

▲한국사는 뜨겁다=사학자 이희근이 학계의 연구 성과가 역사적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며 국사학계의 기존 통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우리 역사의 출발점인 고조선으로부터 동학농민운동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한국사를 새롭게 분석한다. 〈거름·1만5천원〉

▲요트=소설가 서하진의 다섯번째 소설집이다. 강남에 사는 중산층 여성의 평범한 삶이 아들의 가출로 인해 무너진다는 내용의 '요트'를 포함해 '퍼즐' '농담' 등 현대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삶의 불안을 다룬 6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문학동네·9천800원〉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대한민국 최초 여군 헬기 조종사 피우진 중령이 걸어온 30년간의 군 생활을 기록했다. 철저한 남성 중심의 조직인 '군'에서 도전과 투쟁의 역사를 써온 피 중령의 이야기를 통해 여군의 위치와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고, 여군을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달한다. 〈삼인·9천원〉

▲고대 왕국의 풍경, 그리고 새로운 시선=이근우 부경대 박물관 관장이 우리 내부의 역사 의식을 꼬집는다. '우리'안의 역사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로 시야를 넓혀 통합적인 역사 서술을 시도한다. 〈인물과사상사·1만2천원〉

▲금지를 금지하라=전업 인터뷰어 지승호가 10번째 인터뷰집을 펴냈다. 2005~2006년 한 해 동안 이슈가 됐던 사건의 주인공들의 속내를 속시원히 밝혀낸다. 박원순 변호사, 길위의 신부 문정현, X-파일의 이상호 기자 등 7인을 다룬다. 〈시대의창·1만3천500원〉

▲물질과 기억, 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의 미학=현대 프랑스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베르그손을 연구해온 황수영이 고전으로 불리는 '물질과 기억'을 입체적이고 알기 쉽게 풀이했다. 고전을 새로 풀어쓰는 '리라이팅 클래'식 시리즈 9번째 권이다. 〈그린비·1만5천900원〉

▲예술의 도시=여행전문가 이태훈씨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보스니아 등 동유럽 22개 도시를 발로 훑으며 써내려간 여행기. 아름다운 자연풍광과 건축물 뿐 아니라 카프카, 에곤 실레, 모차르트, 클림트, 쇼팽 등 수많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다른세상·1만6천원〉